

4년간의 노력이 맺은 결실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이하나님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31기 합격자 이하나입니다. 수기를 쓰면서 그동안의 수험생활을 돌아보니,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을 들여 비로소 합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수험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기도 했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지금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수도 아니었고, 많이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제가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이 수기를 읽으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기를 작성합니다.

| .수험생활

▶ 1년차

학교에서 복수전공으로 무역학과를 공부하면서 관세사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고, 막연하게 이 직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시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학교를 휴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 동차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차만 준비했던 시기이고, 사당에 있는 학원에서 문제풀이 종합반 수업을 들으면서 부족했던 이론 내용들을 동영상을 통해 보완하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기간도 짧았고, 각 과목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1차 시험은 거의 턱걸이로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4월에 1차 시험을 합격한 후에 7월이 2차 시험이어서 이번시험을 통과하자라는 생각보다는 2차 이론이라도 파악하고 시험에 임하자라는 마음으로 2차 각 과목의 이론 강의를 들으며 내용을 습득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당연히 떨어졌고,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해 시험을 바로 준비했었기 때문에 기본강의 이후에 바로 심화강의를 수업하면서 각 과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암기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 2년차

이 해에는 2차에만 전념하였기 때문에 1월부터 사당에 있는 학원에서 문제풀이 수업으로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고 매 주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감을 익혔습니다. 공부계획은 크게는 몇 개월, 1개월, 2주, 1주 단위로 나누어 계획을 세웠고, 학원의 모의고사 범위에 따라 한 주 한 주 공부계획을 세웠고, '오늘 최대한 자세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정독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일단 암기를 하면 나중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재를 통해 미처 숙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면 모의고사를 암기하고 이해하여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해에는 모의고사 성적은 중상위권 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합격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고, 관세평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단순히 외우듯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서 관세평가 과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학교를 복학하여 학교수업과 병행이 힘들어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가 없어 1차 문제풀이와 2차 이론을 듣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고, 결국 12월 정도 부터 다시 시험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3년차

1학기는 다시 휴학을 하여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1차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2차 모의고사를 병행했습니다. 1차 과목들 중 관세법과 무역영어는 이미 2차를 준비하면서 내용이 숙지되어있어서 괜찮았지만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을 다시 공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1차에만 전념하여 문제풀이와 각 학원의 모의고사를 계속 지켰었고, 그 결과 4월에 1차 시험에서는 평균 80점대로 무난하게 합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2차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낙심도 많이 들고, 합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주로 20등정도 안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모의고사가 괜찮으니 실제 시험에서도 괜찮겠지 라는 큰 잘못된 생각을 갖고 막연하게 시험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6월에 2차 시험이 있었고, 시험을 본 후에는 잘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다른 과목들은 무난했지만 무역실무에서 과락을 받아 3번째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복학을 하여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이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간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도 안됐는데 내가 1년 더한다고 승산이 있을까, 이 시간과 들인 비용, 노력이 부질없는 기회비용이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깊이 이야기를 나눈 후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후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그걸로 만족하자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공강 시간마다 틈틈이 공부를 하였고, 학교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2~3시간이라도 이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2013년 여름부터 fta관세무역연구원에서 교재를 새로 구비하여 동영상강의를 통해 심화강의 종합반과 hs와 관세평가 문제풀이수업을 들으며 공부하였습니다. 학기 중에도 매일 저녁 8시~12까지는 필요한 수업을 인강으로 계속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부하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다시 한 번 정리하였습니다.

▶ 4년차

1월부터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수업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하며 학원의 모의고사 진도에 따라 공부진도를 정하여 공부하였고, 정한 분량은 그날 최대한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는 독서실에서 했기 때문에 대략 아침 6, 7시부터 9시까지 인강을 듣거나 목차정리를 하고 10시부터 밤1시반까지 4과목을 매일 3시간정도씩 배분하여

공부하였고, 점심은 빵 같이 간단한 것을 먹으면서 공부하고, 저녁은 30분 내외로 식사하면서 대외나 외환을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토요일에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저녁에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에 모의고사 강평을 듣고, 한주동안 그 공부계획 중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주로 중상위권(30위 내)을 유지했었는데 가끔씩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몰랐던 부분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4년차에 접어드니 슬럼프라고 할 것도 없이 때때로 자괴감이 들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용기도 북돋아 주면서 힘들었던 마음을 주셨습니다.

1월~3월은 전체적인 틀(대목차, 중목차, 소목차)을 파악하고, 이해위주로 공부하면서 주요내용을 암기하였고, 4월~5월은 외독수도 2배로 늘리고 암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외우고 외독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조금 늦어져도 확실히 숙지하고 넘어 가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시간은 촉박해지기 때문에 마음도 촉박해지기 때문입니다. 6월은 10일에 1회독, 1주에 1회독, 5일에 1회독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외독수를 늘렸고, 암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7월에는 마지막 정리 기간이었기 때문에 기간을 줄여가며 외독수를 늘리고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올 것 같은 부분도 유심히 살피면서 전체적으로 숙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II. 과목별 공부 방법

1. 1차 시험

1) 관세법

3년차 때에는 2차를 이미 공부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수월하였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공부하였고, 단원별, 유사한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꼼꼼히 보면서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자주 틀리는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반복하였고, 오OO 선생님의 문제풀이수업을 통해 시험형태를 계속 접하려고 하였습니다.

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CISG, INCOTERMS2010, UCP600, Hague규칙, Hamburg규칙 등

중요한 협약들 중심으로 주로 공부하였고, 그 이후에 eUCP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아예 스킵하진 않고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고, 내용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00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서브노트를 만들어 정리하면서 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이나 주세법은 공부시간이 적었지만 놓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공부하였고, 계산문제는 내용과 계산방법을 익혀 놓는 정도로만 공부하였습니다.

4) 회계학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과목인데, 이종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을 들었고, 특히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풀이방법을 손으로 풀지 않고서도 머리로 그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였고, 자주 틀리는 문제들은 따로 표시하여 더 많이 풀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수업을 통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려고 많이 연습하였고, 원가회계도 시간은 더 적게 들었지만 같은 방법으로 버리는 부분 없이 공부하였습니다.

2. 2차 시험

1) 관세법 (62.5점)

① 공부 방법

관세법은 제갈현근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전에는 관세법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 했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고, 선생님이 목적, 취지나 문제점을 강조하셔서 이에 대해 큰 주제에서든 작은 주제에서든 항상 생각하고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고 공부했는데 그 이유는 시험에서 목차도 주어지고 어차피 책 전체를 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책의 목차를 내가 공부한 내용에 맞게 순서를 바꾸거나 필기 내용을 끼워 넣어 목차를 추가하는 등 책을 내가 보기 쉽게 만들어 그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주후에 그것만 붙여 넣는 형식으로 하여 전체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각 내용의 소목차는 반드시 외우려고 노력하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라도 키워드 중심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② 모의고사 및 실제시험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였고, 암기가 정말 되지 않는 부분도 이해를 하여 비슷하게라도 쓸 수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 2~3주에는 시험범위에 관계없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에서 취지, 이유 등을 묻지 않는 경우에는 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적을 종종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62.5점을 받았는데 50점 문제를 잘 기술해야한다는 생각에 50분 가까이 시간을 할애해버려서 10점 문제들에 충분히 시간을 배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취지 등은 공부한대로 기술하였고 다른 목차들은 시간에 따라 합쳐 쓴 경우도 있었으나 최대한 묻는 내용을 전부 기술하려고 하였습니다.

2) HS (51.5점)

① 공부 방법

HS는 김00선생님의 기본이론을 듣고, 조전희 선생님의 심화 수업을 통해 내용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하였고, 통칙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 등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호는 전부 외우진 못하더라도 각 호에 한 두 개씩은 꼭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해설서 내용도 보려고 노력하였고 양이 많아 전부 암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이 눈에 익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저는 HS를 교재로 공부했는데, 법령집을 보더라도 전체를 못 외울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 그냥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비교하시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외우려고 하였고 모의고사에 출제하신 내용 등을 주로 표시해놓고 공부하였습니다.

② 모의고사 및 실제시험

1월~6월에는 모의고사 시험범위에 맞춰 공부하였고, 양이 많은 경우에도 반드시 그 범위 내용을 다 공부하고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을 보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간과했던 부분을 알게 되어서 다시 그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51.5점을 받았는데 시험 전에 16부를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들어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 시험에 나와 쓸 수 있었고, 이번시험에 해설서 내용을 묻는 문제도 있었는데 모르는 부분

이더라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해설서를 묻는 문제를 거의 제대로 쓰지 못했고 61류, 62류 주 규정을 묻는 문제를 제대로 쓰지 못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관세평가 (45점)

① 공부방법

관세평가는 정00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이론과 심화수업, 문제풀이를 들었고, 김병수 선생님의 심화강의와 문제풀이수업을 수강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선생님 모두 협정을 강조하셔서 협정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였고 김병수 선생님의 경우에는 관련 협정을 근거 규정으로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협정집에 있는 내용들을 구분해서 관련 내용에 함께 쓰려고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법 내용이 적기 때문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협정의 여러 관련 내용도 묶어서 생각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계산부분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협정 또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 위주로 반복하여 공부했습니다.

② 모의고사 및 실제시험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따라 학습량을 정해 공부하였는데 평가는 이해를 우선적으로 한 후에 법은 확실히 암기하려고 하였고, 협정의 내용은 주요 내용이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위주로 암기하였습니다.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높아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어렵게 공부했었지만 그래도 해당 문제와 관련내용을 다 기술하려고 했었는데 어렵게 공부한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에서와 달리 정작 시험에서는 너무 긴장한 탓인지 내용들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해서 45점을 받아 간신히 과락을 면했습니다.

4) 무역실무

① 공부 방법

최권수 선생님의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들었고, 박병호 선생님 심화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는 최권수 선생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박병호 선생님의 요약집을 마련하여 교재에 부족한 부분을 요약집과 비교해서 추가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무역실무는 각 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였고, 소목차 위주로 내용을 암기했습니다. 또한 무역실무는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교재 목차를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하였는데 최대한 작은 글씨로 키워드와 목차위주로 작성하였고 A4용지 양면으로 60페이지쯤 못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나 시험 때 쉬는 시간에 유용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대외와 외환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투자했고, 식사 시간이나 독서실을 다니는 시간(총 30분)에 많이 보고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② 모의고사 및 실제시험

모의고사 범위에 맞추다 보니 양이 방대한 경우도 있고 양이 수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방대한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배분해서 공부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보통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예를 들어 eUCP, 몬트리올협약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시간을 투자하긴 했지만 각 내용들의 특징이나 중요 내용 등 꼭 써야 할 부분들은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실제시험에서는 D/P D/A 등과 몬트리올협약이 나왔었는데 비신용장 부분은 평소에 정리를 하였었고, 몬트리올 협약이나 대외, 외환은 중요하게 외운 것 중심으로 기술했고 57점을 받았습니다.

III. 기타

1. 글씨체

저는 글씨체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시험만 보면 빨리 많이 써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글씨가 너무 망가져서 모의고사 볼 때에도 선생님들이 글씨체를 많이 신경 써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때에 최대한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쓰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채점하시는 분들이 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므로 최대한 정성껏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최대한 크게 안 흘려 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2. 건강 및 휴식

공부기간에 다 건강하게 챙겨 먹고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따로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을 정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식사 후 10분정도라도 걷는 식으로 운동을 대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나면 정말 기진맥진해져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힘이

드는데, 그럴 때는 그냥 다음 한주를 위해서 폭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험기간이 한 두 달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휴식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3.마인드컨트롤

저는 아무래도 수험기간이 길다보니 이런저런 부담감도 많이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가 잘 나오면 겸손하게 생각하고, 못나오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더 잘 볼 수 있다고 자신을 북돋아 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외에 다녔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내려놓고 많은 힘을 얻었는데, 수험생 분들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IV.이 글을 마치며

제가 수기를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너무 부족한 수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수험생 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많은 분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힘드시더라도 앞으로의 더 나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믿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31기 관세사 이경나 드림

